

## 「6.15 통일대축전」 참고자료

2005.5.29(일), 통일부

### 1. 금번 「6.15 통일대축전」 행사의 의미

- 금번 공동행사는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행사로,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도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
  - 작년 7월 남북대화 중단이후 매우 제한적으로 있어 왔던 평양 방문의 길이 열리는 계기 마련
  - 8.15 행사를 포함 북측에서 개최되는 공동행사 가운데 가장 많은 남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고, 해외에서도 최대 인원(200명) 참가
    - \* '02년 8.15 행사시(금강산) 530명, 해외부분은 '04년 6.15행사시(인천) 처음으로 39명 참가
- 금년도 6.15 남북공동행사는 이제까지의 행사와는 달리 남북 당국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족전체의 행사로서 의미
  - 작년까지 6.15 공동행사는 민간중심으로 2차례 개최되었으나, 금년도에는 남북 당국이 함께 참가하기로 합의(남북차관급회담)
    - \* 6.15 통일대축전은 '02년 금강산, '04년 인천 개최, '03년은 SARS로 인해 개최되지 않음.
- 금년도 행사의 중요성·상징성·효율적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 「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」라는 상설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하였는바, 「공준위」는 향후 8.15 행사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
  - \* 「공준위」 결성과정은 별첨 1 중 「추진경과」 참고

## 2. 6.15 통일대축전 당국대표단 파견

### □ 합의 배경

- 6.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민간만의 행사로 진행되고 정작 공동선언 채택의 주체였던 남북당국이 이를 기념하지 않음에 따른 아쉬움이 제기
- 정부로서도 당국 대표단이 6.15 공동행사에 참여한다면 6.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더욱 빛내고 남북간 신뢰와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
### □ 파견의 의미

-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 10개월여 만에 개최된 차관급회담에서 당국 대표단 파견에 합의한 것은
  - 「6.15 공동선언」 이행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, 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계기
- 6.15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정상화과정에 들어갔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내외에 알리는 신호
  - 그 동안 교착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남북 차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조치
- 북한 당국과 함께 6.15 공동선언의 의미 및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
  - 특히,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이 함께 6.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
### 3. 민간 및 당국 차원 행사의 조화로운 추진

- 전체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합의한 「6.15 5주년 공동행사」의 틀 속에서 민간과 당국행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도록 추진
- 당국대표단은 북측 당국자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「6.15 공동선언 이행의지」를 더욱 강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, 북핵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의 기회로 활용
  - 이번 당국대표단 파견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보다는 남북 관계 지저세 시지저오코 기어코는 바란오코 츠지
- 금번 행사를 계기로 분야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성의껏 지원
  - 「행사추진단」을 구성,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하에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
  - 과열된 방북경쟁 등 추진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준비 <끝>

# 별첨 1 : 6.15 통일대축전(6.14-17, 평양) 행사 준비

# 별첨 2 : 6.15 행사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 준비

## < 별첨 1 : 6.15 통일대축전(6.14-17, 평양) 행사 준비 >

### □ 행사 개요

- 규모 : 남북 각 615명, 해외 200-300여명
  - 가극 '금강' 공연팀, 기자단, 정부지원인원 포함
- 주요 일정
  - 6.14 : 출발, 민족통일대행진, 개막식, 경축야외
  - 6.15 : 민족통일대회, 사진전, 북측 축하공연
  - 6.16 : 부문별 모임, 참관행사, 체육경기, 폐막식
  - 6.17 : 귀환

### □ 추진 경과

- '04.11 남·북·해외 3자는 '6.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·북·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' 결성에 합의
- '04.12.30 북측, 안경호 북측 준비위원장 등 준비위원 105명 선출
- '05.1.31 남측준비위원회, 백낙청 상임대표 등 준비위원 126명 선출
- '05.3.3-5 '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' 결성식 및 1차회의 개최 (금강산)
  -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백낙청(남측), 안경호(북측), 곽동의, 문동환(해외측) 선출
- '05.4.9-11, 4.26-28 준비위원회 실무협의(심양, 금강산)
- '05.5.27 남측 대표단 명단 대북통보

## < 별첨 2 : 6.15 행사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 준비 >

### □ 남북간 합의 내용

- 이번 차관급회담(5.16-19, 개성)에서는 “「6.15 통일대축전」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”키로 합의

#### < 관련 공동보도문 내용 >

남과 북은 6.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.

### □ 대북 실무협의를

- 이러한 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세 차례(5.24, 27, 28) 북측과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개최
  - \* 우리측은 김응희 통일부 회담운영부장 등 11명,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7명 참석
- 실무협의를 통해 △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 파견 △대표단에는 자문단, 지원인원, 기자단 등 50명 동행 △체류기간은 2005.6.14~17, 3박 4일 △이동은 민간대표단과 별개의 전세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로 왕래 △당국대표단간의 별도일정 개최 등에 합의